



"난 그 자식한테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엄마를 놀리면 또 때려 줄 테야. 하지만 누가 그러는데, 부모 잃는 애를 괴롭히면 그 애도 별을 받아 똑같이 고아가 된대. 너석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서 별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 난 엄마가 죽는 건 싫어. 엄마가 없으면 나도 땅에서 남이 발로 밟은 걸 주워……."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망할 놈의 울음이 결뼉결뼉 목에 걸려 나는 말을 채 마치지 못했다.

이삿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어머니는 밀가루로 파전을 부쳐 이웃에 돌리기로 했다. 아마 어머니는 새로 이사 온 기분을 한껏 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떡을 돌릴 형편까지는 못 되는지라, 파전을 돌리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한 것이다. 언덕 아래 정육점에서 애써 구해 온 돼지 비계로 냄비를 달구고 밀가루 반죽을 얹자 고소한 냄새가 집 안 가득 번졌다.

나는 파전을 이웃에 돌리는 책임을 맡았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릇이 부족했던지라, 바가지에 담아 한 집 가서 담아 주고 돌아와서는 또 가야 했다.

"꼭대기 집이라구? 그래, 복 많이 받고 잘살라고 엄마에게 전해 줘라."

"맛있게 잘 먹을게. 너희 엄마한테 한번 놀러 가겠다고 해라."

어느 집이나 훈훈한 덕담을 잊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많았다. 집들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집 모양까지 너무 비슷해서 한 번 들렀던 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각 집들의 특징을 눈여겨봐 두었다. 부엌 문에 비닐을 대어 둔 집, 방문을 붉은 끈으로 묶어 잠그는 집, 벽에 낙서가 있는 집……. 이런 식이었다.

앞뜰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계세요?"

내가 주인을 부르자 방문이 열리더니 비쩍 마른 내 또래 사내

아이가 나왔다. 얼굴엔 시꺼먼 땀국물이 줄줄 흐르고 백구로 밀은 까까머리에는 기계충 딱지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다. 그 아이는 심심하던 차에 마침 좋은 놀잇감을 찾았다는 듯 씯누런 코를 훌쩍이며 내게 다가왔다.

“넌 뭐야, 인마.”

“너희 어머니 안 계시니?”

나는 펍 점잖게 물었으나, 아이는 어깨를 잔뜩 곧추세운 채 이마에 주름살을 바짝 세우더니 사뭇 시비 조였다.

“아앗쭈, 이 짜식이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해?”

아이는 이빨 사이로 침을 짹 빨더니 내 어깨를 한 번 툭 건드리고 보았다.

“나는 백여민이다. 저쪽 꼭대기 집에 새로 이사를 왔어.”

나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다? 왔어? 아앗쭈, 이 짜식이 언제 왔다고 반말이야? 너 죽을래?”

아이는 내가 내민 손을 가자미 눈으로 흘겨보았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요걸 그냥……. 전투 욕구가 솟구쳤으나, 이사 오자마자 싸움박질부터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기가 꺾였다 생각했던지, 아이는 내 손에 들려 있는 파전을 힐끗 바라보았다.

“너 지금 손에 든 게 뭐야?”

“파전이야. 이사했다고 돌리는 거다.”

“오라, 그러니까 신고식을 하겠다는 말이지?”

“신고식이 뭐야?”

“이거 순 맹추로구만. 인마,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게 신고식이지, 뭐야.”

아이는 낄낄 웃었다. 나도 마주 웃었다.

“맞아, 이걸 신고식이야.”

“알았어. 잘 먹을 테니까, 넌 꺼져.”

“너희 어머니는 안 계시니?”

“아앗쭈, 이 짜식이 뭘 꼬치꼬치 캐묻어? 너 죽을래?”

아이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당수*로 나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손을 치켜들었다. 완전히 기고만장이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왜 그래?”

“짜샤, 우린 엄마 같은 건 안 키워.”

“그럼 너 혼자 사니?”

아이는 내가 든 바가지에서 파전을 꺼내 우걱우걱 씹더니 다시 쏘아보았다.

“아앗쭈, 이게 누구를 고아로 아냐? 너 죽을래?”

“아앗쭈”와 “너 죽을래?”는 아이의 말버릇인 모양이었다. 아직 돌아야 할 집이 많았으므로 더 이상 그 아이만 상대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바가지나 비워 줘. 빨리 가 봐야 해.”

* 당수 | 일본식 권법인 '가라테'를 한자음으로 읽은 것.

아이는 시꺼먼 손으로 바가지에 담긴 파전을 통째로 꺼내 들더니 가슴에 싸안았다.

“됐지? 그럼 꺼져.”

요녀석 나중에 다시 만나면 두고 보자.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바로 그때, 아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기다려. 넌 이제부터 내 부하다, 알겠니? 앞으로 나를 만나면 꼭듯이 경례를 붙여. 안 그러면 넌 죽어.”

아이는 주둥이를 뺄수록 내밀며 “죽어”를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말—

“너희 엄마 애꾸지? 너의 별명은 앞으로 새끼 애꾸다. 알겠니?”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든 순간, 이미 내 주먹은 이 무뢰한 녀석의 턱을 후려갈기고 있었다. 녀석이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자 파전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녀석의 코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졌다. 나는 녀석을 깔고 앉아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 새끼, 빨리 취소해.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나는 아이의 머리통을 땅바닥에 쿵쿵 찼었다.

“아이고, 취소! 취소!”

아이는 소리쳤다. 아이의 뺨을 몇 차례 더 후려갈기고 일어섰건만, 분이 삭지 않았다. 먼저 살던 동네에서는 나를 그런 식으로 놀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내 성미를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모르고 터줏대감 행세를 하려 했던 아

이는 그야말로 제때에 임자를 만난 셈이었다.

“한 번만 더 그 따위 소릴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어.”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 완전히 얼이 빠진 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으앙 울음보를 터뜨렸다.

“이 자식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줄 테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 모르지. 개자식! 나 코피 흘렸어.”

내가 한 번 인상을 쓰자, 아이는 콩알 튀듯 냉큼 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잠궈 버렸다. 그리고 문틈으로 내다보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자식아! 애꾸더러 애꾸라고 한 게 대수냐? 이 애꾸 새끼야.”

“이 자식이 그래도…….”

달려가 방문을 마구 당겨 보았지만 안에서 잠근 문은 열리지 않았다.

“네가 이 동네에 사는 이상 한 번은 마주치는 때가 있겠지. 그때 네놈의 대가리를 부숴 버리겠어, 개자식!”

나는 길가에 흩어져 있는 파전을 마구 발로 짓이겨 놓고 침을 뱉아 놓았다. 내가 식식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방 안에서 아이가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야 이 자식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안 이를 줄 알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설사 흡혈귀라 해도 두려울 바는 없었다.

비겁한 인간을 상대하는 일은 두렵다기보다는 성가신 일이다. 나는 돌멩이를 주워 녀석이 숨어 있는 방 문쪽에 힘껏 던져 주고는 돌아섰다.

얼마쯤 가다 뒤돌아보니, 아이는 살금살금 나와서 으깨진 파전 조각을 주워 먹고 있었다. 더러운 자식……. 나는 땅에 뒹하고 침을 뱉었다.

식식거리며 집에 돌아온 나를 보고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그러나 차마 어머니에게 싸움의 내막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한쪽 눈의 동자가 하얗게 바래 버린 어머니를 보니 내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개자식, 죽여 버릴 테야.”

어머니의 계속된 다그침에 마지못해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보같이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다니고 그래. 엄마가 한쪽 눈을 못 쓴다고 해서 엄마 노릇을 못 해 준 일이 있니? 그저 당장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싸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하지만 녀석은 엄마를 병신 취급했던 말이야.”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한바탕 전투까지 치르고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는 어머니가 몹시 야속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넌 비록 애꾸라지만 엄마가 있잖니? 그 애는 부모님이 다 돌

아가셔서 누나랑 둘이 살고 있는 불쌍한 애야. 누나는 공장에 다니느라고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런 애를 두들겨 패 줘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무리 철이 없는 애들이라지만…….”

하지만 녀석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있는 듯이 말했던 말이야, 이런 항변 따윈 내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 부모 없는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 내겐 오직 이것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었다. 이를 어쩐다……. 내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어머니가 한쪽 눈을 못 쓰게 된 것은 내가 다섯 살 무렵이었다.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그 경위를 밝히자면 대충 이렇다.

우리 식구가 서울에 갓 올라온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 하나를 마련해 놓고는 한 달 뒤 다시 부산에 내려가야 했다. 부산 공장에서 밀린 월급을 채 받지 못하고 올라온 때문이었다.

그런데 금세 올라온다던 아버지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가 주고 간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도 금세 바닥이 나 버렸다. 낯선 서울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런 방정맞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의 머리에 떠올랐다 한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낯선 서울땅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

면 앞이 깜깜했던 것이다.

불안과 걱정 속에 한 달을 십 년같이 보내고 나자, 그제야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부산에 내려간 아버지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회사와 사장 집을 끈질기게 찾아다녔다 한다. 그러나 사장은 오늘 내일 미루며 도무지 돈을 안 내 놓더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서울로 집을 옮겼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은 모양이야. 다급해지면 다시 서울로 가겠지 생각하며 배짱을 튕기는 거야. 나쁜 자식,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는 득득 이를 갈았다. 며칠 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성급하게 상경한 것이 잘못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돈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심스레 권해 보기도 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어. 놈은 지금 그걸 바라고 그런 배짱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에겐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장이 껄뽀해서 건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친구한테서 빌려 온 돈 이천 원을 어머니에게 주고 다음 날로 부산에 다시 내려가 버렸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 나자 어머니는 또다시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 대신에 무엇인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설사 아버지가 돈을 받아 왔다 해도 새 직장을 구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나와 여운이를 주인집에 맡기고 부근에 있는 무허가 잉크 공장에 취직을 했다. 하얀 두부벽돌 위에 판자를 얹어 대충 비막음을 해 놓은 공장에서 역한 잉크 냄새를 맡으며 열 명 남짓의 공원들이 일을 했다. 아직 소년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린 공원도 있었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도 있었다. 잉크 냄새 때문에 저녁에 퇴근을 할 무렵이면 골치가 아팠지만, 돈을 번다는 자부심에 그럭저럭 한 달을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잉크에 화공 약품을 붓고 있는데 어린 공원이 지나가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어머니를 향해 쓰러졌다. 그 바람에 화공 약품이 어머니의 얼굴에 쏟아졌다. 칼로 눈을 후비는 듯한 아픔이 어머니를 덮쳤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곁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달려와 어머니 얼굴에 물을 끼얹고 약품을 씻어 내었지만 왼쪽 눈의 아픔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젊은 공원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마땅한 처방이 없어 세척액으로 계속 눈만 씻어 내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의 왼쪽 눈동자는 이미 하얗게 바래어져 있었고, 왼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어머니의 왼쪽 눈을 보고 사내답지 않게 끼이끼이 울음을 터뜨렸다.

잉크 공장 사장은 그 어린 공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으니 그 아이의 부모한테서 치료비를 받으라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쇠꼬챙이를 들고 당장 사장네 집으로 쳐들어갔다.

아버지는 사장 눈앞에 쇠꼬챙이를 들이밀었다.

“치료비 따윈 필요 없어. 단지 왼쪽 눈을 잃어버린 고통이 어떤 것인지만 가르쳐 주지. 그래야 내 아내의 심정을 이해할 테니까.”

겉에 질린 사장은 그제서야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한다. 만일 그때 그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면 아버지는 아마 그의 눈을 쇠꼬챙이로 진짜 찢러 버렸으리라. 아버지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내였다.

그러나 그 몇 푼 안 되는 치료비로 어머니의 맑은 눈을 되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연애 시절 아버지를 훌쩍 반하게 했다는 어머니의 맑은 눈은 이리하여 뿌영게 흐려져 버린 것이다.

나는 만화책에서 옛날 기사들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어머니가 공주님이라면, 아버지와 나는 그 공주님을 보호할 사명감을 지닌 기사들이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나는 뜻이 통했고, 우리는 언제라도 어머니를 위해 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히 어머니를 애꾸라고 모욕하는 무뢰한이 있다면, 나는 녀석과 결투를 벌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더러운 아이를 때려 준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저녁 무렵의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꿈속에서 걱정하다가 문득 깨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깜박거리는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다. 호롱불에 비친 어머니의 커다란 그림자가 천장에서 기

괴한 모양으로 어른거렸다. 어머니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채석장 일로 밤이 아주 깊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는 가끔씩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나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어머니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한참 동안 어머니의 동태를 살피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자지 않고 있었니?”

나는 어머니 품에 와락 뛰어들어 안겼다. 내 고민거리를 싣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엄마, 나도 엄마가 없었으면 저녁때 본 그 녀석처럼 지저분해졌겠지?”

어머니는 빙긋 웃었다.

“너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니?”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파전을 발로 밟아 놓고 거기다 침을 뱉아 놓았는데두 녀석은 땅에 엎드려 그걸 주워 먹고 있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지, 응?”

“그래, 잘못된 걸 알았으면 되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글쎄,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내일이라도 가서 사과를 하렴.”

“그리구?”

“그러구? 그 다음엔 사이좋게 놀면 되는 거지, 뭐.”

어머니는 나를 꼭 품어 주었는데, 매우 포근했다. 나는 어머니 품을 한참 동안이나 즐기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

“그럼.”

“벌을 안 받구?”

“그렇다니까.”

“엄마도 죽지 않는 거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빠져나왔다. 용감한 기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더불어 불끈 오기가 치솟았다.

“난 그 자식한테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엄마를 놀리면 또 때려 줄 테야. 하지만 누가 그러는데, 부모 없는 애를 괴롭히면 그 애도 벌을 받아 똑같이 고아가 된대. 녀석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서 벌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 난 엄마가 죽는 건 싫어. 엄마가 없으면 나도 땅에서 남이 발로 밟은 걸 주워…….”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망할 놈의 울음이 꺾꺾꺾 목에 걸려 나는 말을 채 마치지 못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직이 웃음을 쏟아 놓았다.

“어이구, 녀석 하고는…….”

어머니는 그제야 내 고민의 핵심을 제대로 알아차린 거였다.

좀 창피했지만, 나는 까닭모를 설움에 한참 동안이나 꺾꺾꺾 울었는데, 어머니의 용맹스러운 기사가 되기에 사실 나는 좀 어린 편이었다.

《아홉 살 인생》(청년사, 2010)

위기철

서울에서 태어나 1983년 아동극 〈도깨비 방망이는 어디에 있을까요?〉로 등단한 후, 《반갑다 논리야》 시리즈를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노동자 이야기 주머니》, 《전태일》,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철학은 내 친구》 등 다양한 책을 펴냈습니다.